AskLaw

마이케이스 이혼 보고서

혼인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지금 상황 한 줄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며, 이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음 달 생활비·자녀 생활·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가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할 일 3가지

1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확인할 것 생활비 부담자
가져갈 것 보유 중인 급여·세금 관련 자료 · 본인 결제·이체 내역과 생활비 부담 약정 자료

자료 있음

2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확인할 것 자녀 거주
가져갈 것 자녀 돌봄 일정과 자녀 관련 지출 기록 · 자녀 생활에 관해 나눈 기존 메시지·메모

일부 알고 있음

3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확인할 것 자료 확인 범위
가져갈 것 보유 중인 대출·채무 관련 자료 · 주택 취득·명의와 취득자금 관련 자료

자료 있음

이 문서가 하는 일

- **상담에서 그대로 읽을 질문 5개**
- **가져갈 자료 체크리스트 7개**
- **변호사에게 건넬 1쪽 사건 요약**

이 문서는 상담 준비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 문서 ·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닙니다

쟁점 1 / 4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지금 알고 있는 것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상담에서 확인할 것

생활비 부담자

다음 달 생활비가 최우선이므로, 현재 누가 어떤 항목을 부담하는지 알아야 부족 가능성과 부담 조정의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

생활비 부담을 검토할 때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월 주거비

주거비 외 생활비만 알려져 있어 다음 달 주거 관련 지출은 미확인입니다. 대출 상환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상담의 첫 순서는 현재 생활비의 실제 부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자녀 돌봄 비용과 대출 납부 내역에 연결하되 서로 구분해 검토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최우선이고, 다음 달 비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거비 외 생활비는 100만~250만 원으로 입력됐지만 현재 부담자와 주거비는 몰라, 자녀 비용 및 대출 납부와 구분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생활 비용을 공동 부담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현재의 생활비 문제와 연결되지만, 부담 약정과 소득·실제 지출이 미확인이라 구체적인 부담액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미 가진 급여·세금 자료와 최근 결제·이체 내역으로 생활비 부담자와 각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대출 상환과 항목이 겹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흔히 놓치는 것**

급여·세금 자료를 가진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소득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현재 부담 내역과 제가 가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달 생활비 부담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및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쟁점 2 / 4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지금 알고 있는 것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상담에서 확인할 것

자녀 거주

따로 사는 것을 검토할 때 생활 유지와 돌봄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유지하고 싶은 일상

함께 돌본다는 응답만으로 각자의 담당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일정을 알아야 거주 변화가 돌봄과 비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초등학생 연령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고 아이의 생활은 일부만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므로, 현재 거주와 일상 돌봄을 알아야 생활비 문제와 연결되는 자녀 비용 및 돌봄 공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며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는 이혼 미결정 상태이므로 이 규정을 별거 준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의 검토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기존 돌봄 일정과 자녀 관련 지출 내역을 통해 주된 생활 장소, 평일·주말 돌봄, 이동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된 내용은 기존 메시지 등에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 **흔히 놓치는 것**

공동 돌봄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주된 생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현재 공동 돌봄과 일부 논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혼 결정 전 자녀 생활 준비와 이혼 시 필요한 양육 협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검토하면 되나요?

근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쟁점 3 / 4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지금 알고 있는 것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주택 취득 시점: 혼인 중

주택 취득자금: 두 사람의 소득·저축 · 대출

남은 주택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어요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상담에서 확인할 것

자료 확인 범위

대출·채무 자료는 보유했지만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

대출 잔액 확인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았다는 응답은 잔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별 잔액을 확인해야 채무 규모와 향후 검토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집은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했고 대출은 함께 갚지만 부담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사업 채무도 걱정되므로, 집 명의와 현재 납부를 계약상 채무자와 구분해야 다음 달 자금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합니다. 혼인 중 두 사람의 소득·저축과 대출로 취득한 집은 이 검토와 연결되지만, 이 근거만으로 대출·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이나 분할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미 가진 대출·채무 자료에서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별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사용 목적, 잔액, 납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현재 납부 내역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흔히 놓치는 것

공동명의나 공동 상환만으로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가진 계약서와 상환 내역으로 주택 대출 및 사업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을 선택하면 추가로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쟁점 4 / 4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지금 알고 있는 것

주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외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며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는 모름.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상담에서 확인할 것

주요 사건 시점

자료 확인 범위

왜 중요한가

외도를 의심 단계로 설명했고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이혼 결정이나 책임 판단에
앞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됩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미 안전하게 보유한 메시지·메모 등이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날짜가 없으면 기억나는 시기·상황을 구분하고, 폭언의 내용·반복 여부와
외도 의심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흔히 놓치는 것**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 진술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출발점이지만,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폭언의 구체적 내용 없이 해당 사유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외도는 의심이고 과거 폭언의 날짜도 불명확한데, 현재 진술과 보유 자료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려면 어떤 사실이 더 필요한가요?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공식 통계

공식 통계로 보는 내 상황의 자리

나와 같은 상황의 이혼은 한 해에 얼마나,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까요.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5년 이혼 신고 통계로 내 상황이 전체에서 어디쯤인지만 살펴봅니다.

내 입력 **혼인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88,130건 2025년 한 해 전국에서 접수된 이혼 신고 건수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혼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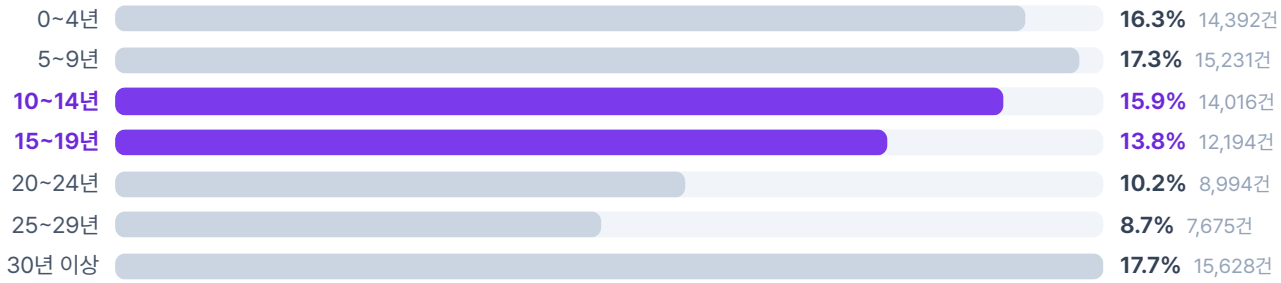


협의이혼 **68,128건** 재판이혼 **19,978건** 미상 **24건**

재판이혼에는 법원의 조정·화해·판결로 이혼한 경우가 함께 들어 있어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으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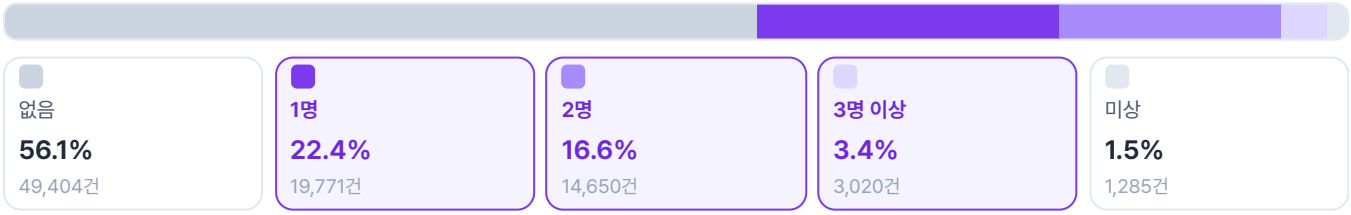
이혼한 부부의 혼인 기간은 이렇게 나뉩니다



입력하신 혼인 기간**(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위 표의 10~14년과 15~19년을 합친 구간으로, 2025년 이혼 신고 중 **29.7%(26,210건)**입니다.

미성년 자녀로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42.5%입니다



자녀 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 칸(1명·2명·3명 이상)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 숫자가 내게 뜻하는 것

혼인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드문 일이 아니고, 네 쌍 중 세 쌍 가까이는 재판 없이 협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내 사건도 협의·조정·소송 중 어디서 시작할지부터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상황이면 협의이혼과 재판 중 어느 쪽부터 검토하는 게 맞을까요?"

"협의가 어려워지면 조정으로 갈 때 기간과 준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읽을 때 유의할 점

혼인 기간별 표와 자녀 수별 표는 따로 집계된 통계라서, 두 조건을 함께 가진 부부가 몇 쌍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한 해의 신고 분포일 뿐,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거나 끝날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2025년, 전국 이혼 신고 건수 기준.
시도/이혼종류별 이혼(DT_1B85005); 시도/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DT_1B85006); 시도/미성년자녀수별 이혼(DT_1B85007).
건수는 표 그대로이고, 비율은 전체 건수로 나누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 기준으로 본 범위

초등학생 연령 자녀 1명을 기준으로,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찾은 월 양육비 범위입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을 입력하지 않아 모든 소득 구간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표의 '양육비 구간' 전체 (월, 자녀 1명)

272,000원 ~ 2,349,000원 최고 소득 구간은 2,350,000원 이상

표준양육비(평균)로 보면 **648,000원**(6~8세, 소득 0~199만 원)부터 **2,476,000원**(12~14세, 소득 1,200만 원 이상)까지입니다.
초등학생 연령은 표에서 6~8세, 9~11세, 12~14세 구간에 걸칩니다.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 소득을 입력하지 않아 전체 구간 범위

표에서 해당하는 부분

자녀 나이 (만)	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 599만 원	600~ 699만 원	700~ 799만 원	800~ 899만 원	900~ 999만 원	1,000~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6~8세	**648,000** 272,000~ 707,000	**767,000** 708,000~ 863,000	**959,000** 864,000~ 1,049,000	**1,140,000** 1,050,000~ 1,216,000	**1,292,000** 1,217,000~ 1,385,000	**1,479,000** 1,386,000~ 1,546,000	**1,614,000** 1,547,000~ 1,732,000	**1,850,000** 1,733,000~ 1,957,000	**2,065,000** 1,958,000~ 2,101,000	**2,137,000** 2,102,000~ 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 724,000	**782,000** 725,000~ 885,000	**988,000** 886,000~ 1,075,000	**1,163,000** 1,076,000~ 1,240,000	**1,318,000** 1,241,000~ 1,406,000	**1,494,000** 1,407,000~ 1,562,000	**1,630,000** 1,563,000~ 1,758,000	**1,887,000** 1,759,000~ 2,012,000	**2,137,000** 2,013,000~ 2,158,000	**2,180,000** 2,159,000~ 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 734,000	**790,000** 735,000~ 894,000	**998,000** 895,000~ 1,139,000	**1,280,000** 1,140,000~ 1,351,000	**1,423,000** 1,352,000~ 1,510,000	**1,598,000** 1,511,000~ 1,654,000	**1,711,000** 1,655,000~ 1,847,000	**1,984,000** 1,848,000~ 2,071,000	**2,159,000** 2,072,000~ 2,191,000	**2,223,000** 2,192,000~ 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칸마다 굵은 숫자가 평균양육비(표준양육비), 아래 작은 숫자가 양육비 구간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열은 부모 합산소득(월, 세전)입니다. 소득을 알면 이 가운데 한 열로 좁혀집니다.

이 숫자가 내게 뜻하는 것
소득 구간을 입력하면 이 범위가 한 열로 좁혀집니다. 지금은 두 분의 월 소득을 합쳐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열을 찾아보세요. 좁혀진 숫자가 상담에서 훨씬 쓸모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소득과 아이 나이 기준으로 산정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나요?"
"자녀 1명 가산이나 교육비 같은 요소가 저희 경우에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숫자를 읽는 법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에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요소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이 범위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판, 2022. 3. 1. 시행)의 표준양육비입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그대로 따르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며,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 12. 22. 공표, 2022. 3. 1. 시행),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소식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9654&gubun=41&cbub_code=000230

마음과 생활

심리·생활 준비

결정의 문제와 오늘의 생활을 나누어 보면

내 입력 —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질문, 법률상 책임을 확인하는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의 답을 얻어야 나머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선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비용과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 입력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상담 준비에서는 원하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내기보다 무엇을 더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선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선택을 다시 의심하도록 하기보다, 실행 전에 확인할 조건과 생활 준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해볼 일

- ☐ 이번 상담에서 얻고 싶은 답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 ☐ 현재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정보와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따로 정리해 보세요.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 고객 입력
이번 상담에서 먼저 답을 얻고 싶은 질문과 연결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 고객 입력
논의의 상태와 법률상 선택이 확정됐는지는 구분해 전달하세요.

참고자료: 부록 [1], [2]

서로 다른 마음이 오갈 때, 생각을 말로 정리하는 방법

내 입력 — 현재 고민: 앞으로의 생활 · 집·재산·대출 · 아이의 생활 · 배우자와의 관계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 외도·신뢰 문제 · 생활비·경제 문제 · 폭언·폭력·안전 문제 · 위자료·상대방 책임

별거·이혼을 고민하거나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슬픔, 불안, 분노뿐 아니라 안도감이나 기대처럼 서로 다른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모두에게 같은 순서와 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어떤 선택이 맞거나 틀렸다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입력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마음에 대한 질문과 사실에 대한 질문을 나누어 적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메모에는 지금 가장 버거운 점이나 지키고 싶은 것을, 사실 기록에는 실제 있었던 일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적습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문장을 상대방의 의도나 법률상 책임을 입증하는 사실처럼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볼 일

- ☐ 지금 가장 설명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 ☐ 이번 상담이 끝날 때 어떤 질문의 답을 얻고 싶은지 골라보세요.

참고자료: 부록 [3]

상담에서 중요한 말이 묻히지 않도록 준비하기

내 입력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있었던 일, 그 일의 의미에 대한 생각, 상대에게 바라는 점이 한 문장에 섞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가져갈 메모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일과 의심하는 일을 나누면, 상담자가 어떤 자료를 더 살펴보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내 입력 — 주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외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며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는 모름.

예를 들어 사실 메모에는 날짜와 관찰한 일, 해석 메모에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상담 질문에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담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시점은 정확한 날짜처럼 채우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로 남겨두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차분할 때 짧게 적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입력 —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아래 정리는 상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배우자에게 즉시 보내거나 대화를 시도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위협·통제·폭력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안전한 지원 경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볼 일

- ☐ 직접 확인한 일과 전해 들은 일, 추측하는 일을 구분하세요.
- ☐ 질문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번 상담에서 먼저 다룰 질문을 표시해 두세요.

참고자료: 부록 [4], [5]

아이를 위한 준비는 하루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내 입력 —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아이에게 중요한 문제는 부모의 법률상 관계만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내고, 누가 돌보며, 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가 아이에게 직접 다가오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자료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부모 사이의 문제를 아이가 해결하거나 편을 선택해야 하는 일로 만들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내 입력 —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생활 계획을 살필 때에는 현재의 일과 중 유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사나 돌봄 배치를 확정된 것처럼 말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표현한 걱정이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답할 수 있는 범위부터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내 입력 —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부모가 함께 돌본다는 응답만으로 실제 요일과 시간, 이동 경로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입력한 생활을 설명하고 빈칸을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나 부모의 양육 능력을 점수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해볼 일

- ☐ 현재 돌봄 담당과 생활 장소, 유지하고 싶은 일상을 구분해 보세요.
- ☐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화를 구분해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 고객 입력 실제 요일·시간과 이동을 누가 맡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거주	잘 모르겠어요 · 미확인 현재 생활 장소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해 보세요.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 고객 입력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 합의한 내용을 구분해 보세요.

참고자료: 부록 [6], [4]

생활비·주거비·채무를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기

내 입력 —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생활의 준비에서는 지금 실제로 나가는 돈, 그 돈을 내고 있는 사람, 계약이나 법률에서 확인할 책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함께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책임이나 앞으로의 부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률 분석과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입력 —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월 주거비와 대출 상환액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두 금액을 더하면 같은 지출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범위로 답했다면 그 범위를 정확한 월 지출액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항목과 기준 기간을 맞추고, 부담자·납부일·금액 중 무엇을 알고 있는지 표시하는 편이 상담에 유용합니다.

내 입력 — 재산·채무 종류: 부동산 · 사업체·지분 · 대출·채무

아래 지도에는 입력한 값과 확인할 지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없는 채무나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새로 가정하지 않으며, 이사나 재산 처분·지급 중단을 권하는 계획도 아닙니다. 자료가 부족한 칸은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해볼 일

- ☐ 현재 금액의 기준 기간과 포함 항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 ☐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해 상담 질문을 준비하세요.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 고객 입력
금액의 기준 기간과 포함된 항목을 확인하세요.

월 주거비
잘 모르겠어요 · 미확인
어떤 주거 지출인지, 대출 상환과 겹치는지 구분하세요.

생활비 부담자
잘 모르겠어요 · 미확인
현재 지급과 앞으로 논의할 부담을 구분하세요.

남은 주택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어요 · 고객 입력
정확한 잔액과 계약별 기준일은 자료로 확인하세요.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 고객 입력
실제 지급자와 계약상 책임을 구분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부록 [2]

이미 가진 자료와 도움받을 일을 나누어 준비하기

내 입력 —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준비자료를 한 번에 모두 갖추어야만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더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가진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피고, 그 자료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별도의 질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도 내용이 확인된 증거와는 구분됩니다.

해볼 일

- ▢ 혼자 정리할 자료와 도움을 받아 확인할 일을 나누어 보세요.
- ▢ 상담에서 꼭 묻고 싶은 질문 하나와 그 질문에 연결된 자료부터 준비해도 좋습니다.

참고자료: 부록 [5]

가져갈 자료

상담에 가져갈 자료

이미 가진 자료부터 살펴보고, 없는 자료는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집 등기·대출 관련 자료도 상담 전에 있는 것부터 확인해 두세요.

내가 답한 내용 —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먼저 준비할 자료

- [ ] **보유 중인 급여·세금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고 답함 생활비

  자료가 누구의 어느 기간 소득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생활비 부담 검토에 연결합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쟁점 ·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관련 입력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 [ ] **보유 중인 대출·채무 관련 자료** 가지고 있다고 답함 재산·채무

  주택 대출과 사업 채무 중 포함된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상 채무자·보증인, 사용 목적, 잔액·납부일과 실제 상환 내역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쟁점 ·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관련 입력 ·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 [ ] **본인 결제·이체 내역과 생활비 부담 약정 자료** 보유 여부 미확인 생활비

  적법하게 보유한 내역이나 기존 약정이 있다면 항목별 부담자와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을 주거비·대출 상환과 구분해 살펴봅니다.

  관련 쟁점 ·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 [ ] **자녀 돌봄 일정과 자녀 관련 지출 기록** 보유 여부 미확인 자녀

  기존 기록이 있다면 자녀가 주로 지내는 곳, 평일·주말의 담당 돌봄과 이동, 비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 돌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살펴봅니다.

  관련 쟁점 ·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관련 입력 ·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 [ ] **자녀 생활에 관해 나눈 기존 메시지·메모** 보유 여부 미확인 자녀

  본인이 가진 기록이 있다면 일부 이야기된 내용 중 서로 뜻이 맞은 부분과 아직 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별거 검토 단계의 생활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이후에 확인할 자료

- [ ] **주택 취득·명의와 취득자금 관련 자료** 보유 여부 미확인 재산·채무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명의·취득 시기와 두 사람의 소득·저축 및 대출이 사용된 내역을 살펴봅니다. 향후 이혼을 선택할 경우 재산분할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관련 쟁점 ·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 [ ] **외도 의심·과거 폭언 관련 기존 메시지·메모** 보유 여부 미확인 사실 정리

  이미 안전하고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정, 기억나는 시기, 폭언의 구체적 내용·반복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쟁점 ·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관련 입력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상담 질문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말할지 막히면 아래 질문을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싶다고 답한 내용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1

생활비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현재 부담 내역과 가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협의가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이유 생활비 부담자·배우자 소득·주거비가 미확인입니다. 부담 약정과 실제 지출을 확인하면 생활비 협의나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의 검토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력 ·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2

자녀

초등학생 연령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고 생활에 관해서는 일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결정 전 생활 준비와 이혼을 선택할 때의 양육 협의는 어떻게 나누어 검토하나요?

이유 자녀의 주된 생활 장소와 구체적인 돌봄 일정은 미확인입니다. 이를 확인해야 현재 일상 유지에 필요한 조정과 향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력 ·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3

재산·채무

공동명의 집 대출은 함께 갚고 있고 사업 채무도 걱정됩니다. 제가 가진 대출·채무 자료로 각 채무의 계약상 책임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유 보유 자료의 범위와 계약별 채무자·보증인, 잔액·납부일이 미확인입니다. 공동명의와 실제 상환을 계약상 책임과 구분해야 다음 달 납부 부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입력 ·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4

재산·채무

집은 혼인 중 두 사람의 소득·저축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면 집과 남은 대출, 사업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검토하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이유 재산·채무의 금액과 명의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취득자금과 채무 사용 목적·잔액을 확인해야 재산분할 검토를 구체화할 수 있으며, 공동 상환만으로 분할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사실 정리

외도는 의심일 뿐이고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도 모릅니다.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을 검토하려면 기억과 보유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구분해야 하나요?

이유 외도 의심의 근거와 폭언의 내용·반복 여부, 자료 범위가 미확인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정을 나누어야 이혼 사유와 책임에 관해 검토할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력 ·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함께 기억할 점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은 입력하신 내용이며,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 이혼 사유·위자료·채무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 구체적 위협이 생기면 자료 확보나 대화보다 안전한 장소와 112 등 긴급 지원을 우선해 주세요.

부록

근거 발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발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

연결된 쟁점: 외도 의심과 과거 폭언의 사실·자료 구분

관련 입력: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40&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발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연결된 쟁점: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관련 입력: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26&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발췌: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결된 쟁점: 다음 달 생활비의 부담과 확보 가능성

관련 입력: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3&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발췌: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

연결된 쟁점: 자녀의 생활 유지와 돌봄·비용의 조정

관련 입력: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7&joBrNo=0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법령 · 자료 날짜 2026.03.17

발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 …

연결된 쟁점: 공동명의 집 대출과 사업 채무의 구분

관련 입력: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원문 보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839&joBrNo=0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1] Doherty·Harris / 미국심리학회 · 이혼의 기로에 선 부부 돕기 · 공개 서문 (번역 제목) (2017)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결정의 명료화에 관한 관점만 참고. 임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결정의 문제와 오늘의 생활을 나누어 보면

관련 입력: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apa.org/pubs/books/Helping-Couples-Intro-Sample.pdf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상담 매뉴얼 · 2023 개정본, 이혼 전후 상담 부분 (2023)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공개 매뉴얼의 관점을 참고한 자체 안내. 심리검사·치료 절차의 실시가 아닙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결정의 문제와 오늘의 생활을 나누어 보면 · 생활비·주거비·채무를 한 덩어리로 계산하지 않기

관련 입력: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kihf.or.kr/download.do?uuid=1cbe6fae-d4f5-44cc-a570-549008579a73.pdf

[3] 캐나다 법무부 · 양육 계획 세우기 ·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 (번역 제목) (2021)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일반 심리교육. 특정 감정·회복 기간·진단을 개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서로 다른 마음이 오갈 때, 생각을 말로 정리하는 방법

관련 입력: 현재 고민: 앞으로의 생활 · 집·재산·대출 · 아이의 생활 · 배우자와의 관계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 외도·신뢰 문제 · 생활비·경제 문제 · 폭언·폭력·안전 문제 · 위자료·상대방 책임

원문 보기: https://www.justice.gc.ca/eng/fl-df/parent/mp-fdp/p2.html

[4] 캐나다 법무부 · 양육 계획 세우기 · 별거 이후의 양육 (번역 제목) (2021)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갈등 노출과 대화 준비의 일반 관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 대화를 권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상담에서 중요한 말이 묻히지 않도록 준비하기 · 아이를 위한 준비는 하루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관련 입력: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justice.gc.ca/eng/fl-df/parent/mp-fdp/p4.html

[5] 미국심리학회(APA) · 건강한 이혼 · 관계 정리 과정을 준비하는 방법 (번역 제목) (2013)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메모·일상 관리·지지망에 관한 일반 정보. 과거 미국의 이혼율이나 회복 기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상담에서 중요한 말이 묻히지 않도록 준비하기 · 이미 가진 자료와 도움받을 일을 나누어 준비하기

관련 입력: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원문 보기: https://www.apa.org/topics/divorce-child-custody/healthy

[6] 캐나다 법무부 · 양육 계획 세우기 ·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 (번역 제목) (2021)

심리·생활 참고자료 · 확인 범위: 자녀에게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생활을 살피는 일반 안내. 한국의 양육 결정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결된 준비 내용: 아이를 위한 준비는 하루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관련 입력: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원문 보기: https://www.justice.gc.ca/eng/fl-df/parent/mp-fdp/p3.html

부록

입력 요약

입력하신 내용

혼인 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동거·별거: 따로 사는 것을 생각 중이에요

현재 거주 형태: 자가 주택

주택 보유 여부: 있어요

재산 파악 범위: 일부만 알고 있어요

현재 고민: 앞으로의 생활 · 집·재산·대출 · 아이의 생활 · 배우자와의 관계 ·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 외도·신뢰 문제 · 생활비·경제 문제 · 폭언·폭력·안전 문제 · 위자료·상대방 책임

배우자와의 논의: 대화가 어려워요

첫 상담 질문: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생활, 공동명의 집 대출, 사업 채무와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외도는 의심일 뿐이고 과거 폭언은 있었지만 현재 즉각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 연령: 초등학생 연령

현재 돌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주택 명의: 공동명의예요

주택 취득 시점: 혼인 중

주택 취득자금: 두 사람의 소득·저축 · 대출

남은 주택 대출: 부담이 크게 남아 있어요

상담 우선 주제: 당장의 생활비

보유했다고 답한 자료: 대출·채무 관련 · 급여·세금 관련

자료를 가진 경위: 제게 이미 있는 자료예요

월 주거비: 잘 모르겠어요

주거비 외 생활비: 100만~250만 원

생활비 부담자: 잘 모르겠어요

자녀 거주: 잘 모르겠어요

자녀 생활에 관한 논의: 일부만 이야기했어요

재산·채무 종류: 부동산 · 사업체·지분 · 대출·채무

금액·명의 파악: 일부만 알아요

대출 상환자: 함께 갚아요

주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 외도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며 과거 폭언의 정확한 날짜는 모름.

사건 경위를 알게 된 방식: 아직 의심·추정이에요

질문 구성과 안내 문구는 조원상 변호사(법무법인 혜민 대표 변호사) 외 2인과 이상우 세무사가 검토했습니다.

이 문서는 입력하신 내용과 공개 법령·자료를 상담 준비를 위해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과 가지고 있다고 답한 자료의 내용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